

음악교육에서의 평가 연구 동향 분석*

Trends of Assessment Research in Music Education

윤 문 정**

Moonjung Yo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30년 동안의 국내 음악평가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과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서 선정된 총 74편의 논문을 연도,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 성취와 적성평가 범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악평가 논문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도 점차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성평가 보다는 성취평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은 '복합/특정대상 없음'이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대상은 성인과 특수교육대상자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이 가장 많았고, 연구내용은 평가도구 개발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음악교육 평가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안 하였다.

주제어: 음악평가, 음악교육 평가, 음악평가 연구동향,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동향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trends in music assessment research over the last 30 years in Korea to find the limitation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selected 74 papers were categorized and analyzed by research subjects, contents, research method, and whether it is achievement or aptitude that is being assess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number of music assessment research increased gradually and they diversified in terms of subjects, research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Mostly, the subjects were 'compound/no specific subjects', and the least frequently studied subjects were adults and special need students.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method was content analysis, and the mostly studeid research content was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s.

Key words: music Assessment, music education assessment, music assessment research trend, music evaluation

*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Research Grant of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moonjungyoon7@hanmail.net

Associate Professor,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369-3 Chinyangho-Ro, Chinju, Korea

I. 서론

음악 평가는 평가를 하는 목적, 평가의 구체적 내용과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얼마만큼 배웠는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성취도 평가’와 잠재적 가능성을 평가 하는 ‘적성평가’로 분류할 수 있고(Hyun, 2006), 평가하는 음악 내용에 따라서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으로 범주화 할 수도 있다. 음악 평가 방법도 관찰평가(실기평가), 상호평가, 포트폴리오, 면접, 지필평가, 실음지필평가, 자기평가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Seung et al., 2019).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평가 지침을 보면 교사평가 뿐만 아니라 학생평가를 병행하고, 다양한 유형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능, 표현, 태도, 생활화 실천 등을 고루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는 교육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교육의 질을 재고하게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평가결과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파급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음악 분야의 평가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음악교육 관련자들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평가를 하기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시도와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음악교육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는데, 객관화된 도구 개발 연구(Lee et al., 2000; Kim, 2003; Jang et al., 2005; Byun & Hyun, 2005; Choi et al., 2008), 검사도구의 검증-타당도 연구(Hyun, 2006, 2009; Choi & Bae, 2015), 평가 실태조사(Byun, 2013; Jang, 2019), 외국 평가에 대한 분석연구(Jeong, 2009; Choi, 2018)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음악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중에서 평가 연구의 전체적 흐름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재은과 석문주(Jeong & Seog, 2014)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동향을 연구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평가연구가 얼마나 수행되었는지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는 특정 학술지(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에 실린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평가연구 분석은 전체 논문의 일부분이었다. 윤문정(Yoon, 2019)의 음악교육 동향 연구에서도 평가 논문을 분석했지만 이 역시 연구대상을 초등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만으로 국한하였고, 평가뿐만 아니라 음악교육의 여러 영역을 분석하였기에 평가연구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술지에 수록된 음악 평가 연구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음악평가 관련 주제들을 알 수 있고, 음악 평가의 전반적 흐름과 개선점 및 보완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과거 30년간(1990년~2020년 현재) 학술지에 게재된 음악교육 평가 논문 74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체적인 동향과 연도,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별로 비교·분석하였고, 성취도 평가와 적성평가 연구의 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음악교육 평가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음악평가 발전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관련분야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음악교육에서 평가 논문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여 음악 평가 연구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와 방법이 이루어졌다.

1. 분석대상 선정

음악교육과 관련된 평가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RISS와 KCI를 활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할 때 사용한 키워드는 '음악교육'과 '평가' 또는 '음악'과 '평가'였고, 기간은 1990년 이후부터 2020년(5월 현재)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학술지 등급은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로 제한하였다. 논문의 언어는 한국어로 지정하고, 원문이 있는 논문만 검색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색된 논문 중에서 중복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음악치료와 관련된 논문 등은 제외시켰다. 이렇게 해서 총 74편의 논문을 본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 준거 및 분석 절차

다음은 본 연구를 위한 분석준거를 설정하기 위해 참고한 선행연구이다. 각 연구의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주제/내용)에 대한 준거는 다음과 같다.

- 정수임, 신동희 (2016):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예비교사, 학부모, 교사, 영재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특정 대상자 없음/인식론적 접근(양적 연구, 질적 연구, 통합연구, 기타), 연구목적(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연구, 평

- 가연구), 연구방법(문헌연구, 기술연구, 조사연구, 상관·집단 비교연구, 실험연구, 개발연구, 관찰연구)/ 영역(인지적, 정의적, 혼합, 기타), 평가도구(지필형, 수행형, 기타), 수집자료(설문지, 면담, 관찰, 기록, 대상자 산출물, 문헌자료 등
- 곽현석, 강옥려, 김경성 (2016): 학교급(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학생유형(일반, 특수-영재, 특수-장애)/ 질적연구(사례, 면접, 관찰), 양적 연구(기술-비교, 실험, 조사), 혼합연구, 이론연구, 프로그램개발/ 평가도구(도구개발, 도구 검증(타당화), 도구 활용), 심리학적 구인(문제해결력, 지능, 자기효능감, 동기, 지각, 창의성), 교육영역(정책, 진단, 교수-학습, 교사교육
 - 정재은, 석문주 (2014):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음악전문가, 특수아, 성인, 문헌, 프로그램 개발, 학생+교사, 기타/ 역사적연구, 철학적연구, 실험적연구, 서술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2개이상의 방법/ 음악과역사, 음악 교육철학, 음악교육심리, 음악과교육과정, 음악교수방법, 음악교육공학, 음악교육 평가, 음악교사교육, 음악특수교육, 대중음악, 방과 후 활동, 통합교과교육, 실기 교육, 기타
 - 최은식, 신혜경 (2017): 유아, 특수아(영재, 장애아), 학생(초등학생, 중등학생), 교사(예비교사)현장교사, 음악가, 성인(비음악가), 일반, 복합/ 양적연구(서술연구, 실험연구), 질적 연구(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 문화기술지, 일반 질적연구), 혼합방법론, 이론적 연구/ 음악미학 및 철학, 음악심리학, 음악교육학, 종족음악학, 대중음악, 작곡 및 즉흥연주, 음악 공학
 - 윤문정 (2019): 영유아,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생, 교사, 음악전문가, 특수아, 성인, 학생과 교사, 문헌, 프로그램, 기타(복합)/ 실험연구, 조사연구, 내용분석, 질적 사례 연구, 상관, 인과비교 연구, 복합/ 음악교육역사, 음악교육철학, 음악 교육심리학,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음악교육공학, 음악교육평가, 음악교사교육, 음악과 특수교육, 음악교육행정, 대중음악, 방과 후 수업, 음악 교재 연구 그리고 기타(복합)

위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준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준거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 연구대상: 학교급별 (유아,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생), 교사 (예비교사-), 영재, 성인, 특수교육대상자, 복합/특정 대상자 없음
- 연구방법: 내용분석 연구(문헌고찰, 교육과정 분석, 평가 내용 분석 등), 실험연구 (변인을 조작하여 변화되는 현상), 조사연구(질문지, 면접, 인터넷, 전화 등), 비교 연구(유사점, 공통점, 차이점 등), 관찰연구(연구대상의 행동 관찰), 상관/원인 연구(자연적 상황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 파악), 사례 연구(면담, 기술, 설명), 복합

연구(두 개 이상의 연구방법)

- 연구내용: 평가개념·이론적 내용(평가에 대한 개념,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 이론)/평가도구 개발(평가, 검사 도구 제작), 평가도구 활용(평가도구 활용 및 적용 방안, 음악교육 이론 평가에 적용, 평가 결과 활용 방안), 평가도구 검증(기존 평가 도구 검증/타당화), 평가현황 및 실태(평가 상황, 상태), 혼합·복합 연구
- 성취/적성 평가: 성취도 평가, 적성 평가 논문 수

연구 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생, 교사(예비교사), 일반 성인, 영재, 특수교육 대상자로 나누었고, 하나의 대상을 정하지 않고 둘 이상 섞여 있거나 특정 대상이 없는 경우는 '복합/ 특정대상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 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비교연구, 관찰연구, 상관/원인 연구, 사례연구로 세분화하였고, '복합'은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이 사용된 경우를 의미한다. 연구 내용 중 평가의 개념이나 평가와 관련된 이론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개념/이론'으로 분류하였고, 연구자가 평가도구를 직접 개발한 연구인지, 도구에 대한 검증(타당화)연구인지, 평가도구 활용이나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인지에 따라 평가도구 개발, 평가도구 검증, 평가도구 활용으로 분류하였다. 현재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알아보는 연구는 평가현황/실태연구로 범주화하였고,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다루어진 논문인 경우에는 '혼합'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성취도와 관련된 평가인지 적성을 알아보는 평가인지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의 수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준거에 따라 분석된 논문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집계한 후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았다.

선정된 논문 74편의 제목과 국문초록의 내용을 준거에 따라 1차 분류하였고, 연구대상 논문을 모두 읽은 후 다시 분석을 하여 1차 분류 결과와 비교하였다. 총 74편 중 국문초록을 통해 연구방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두 편의 연구를 제외하고, 1차 분류 결과와 2차 분석 결과는 동일했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전체적 연구 동향

전체적인 음악평가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연구대상 74편의 논문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1990년~1999년, 2000년~2009, 2010~2020년) 분석한 결과와 성취/적

성평가 논문의 편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0년 단위의 연구 동향

〈Table 1〉은 10년 단위로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의 논문의 수를 집계 한 내용이다. 편의상 1990년~1999년은 '1차시기'로, 2000년부터~2009년까지는 '2차시기'로, 2010년~2020년까지는 '3차시기'로 명명하여 설명한다. 10년씩 묶어서 연구 흐름을 파악해본 결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의 수는 1차시기 13편, 2차시기 21편, 3차시기 40편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1차와 2차시기는 모두 복합/특정 대상이 없는 논문이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3차 시기에는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2차시기부터 연구대상이 다양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차시기에 없었던 영재와 관련된 연구가 등장하고, 3차 시기에는 7편으로 급증 하였다.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고시되면서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Lee, 2012), 영재에 대한 평가 연구 역시 이 시기부터 시작되고 증가한 것으로 해석가능한 부분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무하다가 2010년 이후에 단 한편 있어서 특수교육에서의 음악 평가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내용분석 연구가 1차시기 13편중 12편, 2차시기 21편중 12편, 3차시기 40편중 21편으로 전 시기에 걸쳐서 가장 많았다. 1차시기 때는 1편을 제외하고 모두 내용분석연구였지만 3차시기로 갈수록 연구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음이 나타났고, 특히 관찰연구, 상관/원인연구, 사례 연구는 1차, 2차시기에 없다가 3차시기에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연구내용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1차 시기에는 평가도구 활용에 관한 논문이 13편중 8편으로 가장 많았고, 2차와 3차 시기에는 연구 도구 개발 논문이 21편중 11편, 40편중 17편으로 가장 많았다. 평가 현황이나 실태에 대한 논문은 1차 시기에는 없었으나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모두 2차시기로 가면서 양적 증대와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1998년에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평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성취/적성평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74편 중 성취평가가 59편(79.7%)이고, 적성평가가 15편(20.3%)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취도 평가의 양은 10편에서 18편, 31편으로 증가하고, 적성 평가도 3편에서 9편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search trends of theses on the music evaluation

Number of study(%, N=74)				
Year		1990~1999(1st)	2000~2009(2nd)	2010~2020(3rd)
Number of study		13(17.6)	21(28.4)	40(54.0)
Study subject N=74 (100)	Primary school students	3(4.0)	5(6.6)	6(8.1)
	Secondary school students	1(1.4)	2(2.7)	8(10.8)
	College students	1(1.4)	1(1.4)	3(4.1)
	Preschool students	-	2(2.7)	2(2.7)
	Teacher	-	2(2.7)	6(8.1)
	Gifted child	-	1(1.4)	7(9.5)
	Adults	-	1(1.4)	-
	Special education	-	-	1(1.4)
Research method N=74 (100)	Composite/No specific target	8(10.8)	7(9.5)	7(9.5)
	Content analysis research	12(16.2)	12(16.2)	21(28.4)
	Experimental research	1(1.4)	1(1.4)	1(1.4)
	Survey research	-	4(5.4)	6(8.1)
	Comparative study	-	2(2.7)	3(4.1)
	Observational study	-	-	1(1.4)
	Correlation/Cause study	-	-	1(1.4)
	Case study	-	-	1(1.4)
Content of study N=74 (100)	Mixed method research	-	2(2.7)	6(8.1)
	Applying evaluation tool	8(10.8)	-	10(13.5)
	Validation of assessment tools	-	3(4.1)	3(4.1)

Number of study(%, N=74)				
Year		1990~1999(1st)	2000~2009(2nd)	2010~2020(3rd)
	Development of evaluation tools	2(2.7)	11(14.8)	17(22.9)
	Evaluation status and actual condition	-	3(4.1)	8(10.8)
	Assessment concepts/Theories	2(2.7)	4(5.4)	1(1.4)
	Blend	1(1.4)	-	1(1.4)
Achievement/Aptitude N=74 (100)	Achievement evaluation 59 (79.7)	10(13.5)	18(24.3)	31(41.9)
	Aptitude evaluation 15(20.3)	3(4.1)	3(4.1)	9(12.2)
Total 74(100)				

2) 성취/적성평가 연구 논문 수

성취도 평가는 74편 중 59편(79.7%)이고, 적성평가는 15편(20.3%)으로 성취평가가 적성평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직까지 평가는 성취한 것에 대한 '심사(evaluation)' 나 '사정(assessment)'이라는 인식에 대한 방증이다. 현경실(Hyun, 2006)은 음악적성검사는 학생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음악수업내용과 방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는 상호영향을 주는 관계이고 모두 중요한 평가이므로 음악적성 평가 연구의 양적 증대를 통한 연구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2. 분석영역별 결과

앞서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분석영역(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따른 세분화된 분석 결과 제공한다. 분석영역별 동향과 각 분석영역에 대한 다른 영역의 동향을 알아보았다. 각 분석 영역에 대한 다른 영역의 논문수를 알아보는 작업은 보다 세밀하게 평가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눈에 띄는

결과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1) 분석영역별 논문 수

(1) 연도별 연구 논문 수

각 연도별로 몇 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연도별로 연구 편수를 조사하였다(Table 2). 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2년까지는 평가 관련 연구가 실행되지 않은 해(1990년, 1992년, 1993년, 1996년, 1997년, 1998년, 2001~2년)도 있었지만, 2003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평가 연구가 실행되었고 이전보다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앞서 전체적 동향에서도 설명했듯이 2000년 이후 평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년도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해가 있긴 하지만 눈에 띄는 정도로 특정연도의 급격한 증가나 감소가 보이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Number of annual research on the music evaluation(N=74)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	1	-	-	2	4	-	-	-	6	1	-	-	4	2	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Total
2	1	2	5	6	3	8	4	1	4	6	3	1	2	2	74

(2) 연구 대상별 논문 수

연구대상은 특정대상이 없는 경우가 22편으로 (29.7%)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14편(29.7%), 중등학생 11편(14.9%), 교사와 영재가 각각 8편(10.8%), 대학생 5편(6.8%), 그리고 유아가 4편(5.4%)으로 그 뒤를 이었다(Table 3). 평가는 교육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복합/특정대상이 없음을 제외하고는 초, 중등학생과 교육현장 근무자인 교사 대상 연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적은 수의 연구는 성인과 특수교육대상자 논문으로 각 1편씩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음악치료 관련 논문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점이 논문 집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수교육 음악과 기본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평가, 영역별 균형 있는 평가, 과정중심 평가, 학생중심 평가, 생활화에 대한 평가 내용이 나와 있고 실용중심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Won, 2018).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음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

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유아 연구도 74편중 4편으로 수가 적은편이다, 이순자(Lee, 2004)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평가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평가활동의 저조함과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함을 유아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평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 현장 진단과 유아평가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학생 연구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진이와 임상현(Jang & Lim, 2020)은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역시 삶의 다른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평가는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아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평가연구가 적다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와 대학생 평가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현장과 대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3> Number of research by subject(%)

Number of research(%) N=74(100)									
Composite/ No specific target	Primary school students	Secondary school students	Teacher	Gifted child	College students	Pre- school students	Adult	Special education target	Total
22 (29.7)	14 (18.9)	11 (14.8)	8 (10.8)	8 (10.8)	5 (6.8)	4 (5.4)	1 (1.4)	1 (1.4)	74 (100)

(3) 연구 방법별 논문 수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 방법은 내용분석연구방법으로, 74편중 45편이며 전체의 60.8%에 달한다. 다음으로 많은 조사연구(10편, 13.5%)와도 차이가 클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 가장 적은 수의 연구방법은 관찰, 상관/원인, 사례 연구로 74편중 각 1편씩(1.4%) 있었다(Table 4). 음악교육 연구방법에 대해 연구한 최진호(Choi, 2011)는 한쪽으로 치우친 연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구방법의 균형을 통해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의 주제에 따라 연구방법은 달라지겠지만 한 가지 연구방법에 몰려있는 것 보다는 음악 평가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4> Number of research by research method

Number of research(%) N=74(100)								
Analytical research	Survey research	Complex research	Comparativ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Observational research	Correlation /Cause research	Case study research	Total
45 (60.8)	10 (13.5)	8 (10.8)	5 (6.8)	3 (4.1)	1 (1.4)	1 (1.4)	1 (1.4)	74 (100)

(4) 연구내용별 논문 수

연구내용별 연구 수는 평가도구 개발 연구가 30편(40.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평가도구 활용(18편, 24.3%), 평가현황/실태연구(11편, 14.9%), 평가개념/이론연구(7편, 9.5%), 평가도구검증(6편, 8.1%) 순이었으며, 혼합내용(2편, 2.7%)이 가장 적었다<Table 5>. 평가도구 개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은 그동안 음악교육자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음악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평가도구 검증 연구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어떤 평가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가도구가 구비해야할 조건(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의 점검은 중요한 일이다(Kim & Kang, 2010). 따라서 음악 평가 도구의 문제점 개선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 평가도구 검증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5> Number of research by content

Number of research(%) N=74(100)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Applying assesment tools	Assessment status	Assesment concept/ theory	Validation of assesment tools	Blend	Total
30(40.5)	18(24.3)	11(14.9)	7(9.5)	6(8.1)	2(2.7)	74(100)

2) 각 분석영역에 대한 타 영역 동향

(1)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 방법, 연구내용, 성취/적성 평가 동향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방법, 연구내용, 성취/적성 평가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초등학생 대상 연구가 가장 다양한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대학생의 경우 다른 연구대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내용분석 연구가 한 편도 없었다. 유아 대상의 연구는 모두 평가도구 개발 논문이었는데 연구대상별로 다양한 주제

의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학문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 대상 평가 연구의 내용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유아 대상 평가연구는 그 수도 적은 것으로 나왔는데, 적은 연구 편수와 다양하지 못한 연구 내용은 유아에 대한 음악 평가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1편의 연구는 모두 성취평가로 나타났는데, 중등과정 학생들도 적성 여부와 잠재적 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다.

<Table 6> Analysis of research methods, research contents, achievement/Aptitude evaluation on research subjects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	Research contents (%)	Achievement/Aptitude evaluation(%)
Composite/ No specific subject 22 (29.7)	Content analysis research 19(25.6)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7(9.5)	Achievement/20(27)
		Assesment concept/Theory 6(8.1)	
	Complex research 3(4.1)	Validation of assessment tools 6(8.1)	Aptitude 2(2.7)
		Assessment status 2(2.7)	
		Blend 1(1.4)	
Primary school students 14 (18.9)	Content analysis research 8(10.8)	Usage of assessment tools 6(8.1)	Achievement 12(16.2)
	Complex research 3(4.1)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6(8.1)	
	Survey research 1(1.4)	Validation of assessment tools 1(1.4)	Aptitude 2(2.7)
	Experimental research 1(1.4)	Assesment concept/Theory 1(1.4)	
	Case study 1(1.4)		
	Secondary school students 11(14.9)	Content analysis research 6(8.1)	
Survey research 4(5.4)		Assessment status 4(5.4)	
Comparative research1(1.4)		Usage of assessment tools 1(1.4)	Aptitude -
		Validation of assessment tools 1(1.4)	
Teachers 8(10.8)	Content analysis research 4(5.4)	Usage of assessment tools 3(4.1)	Achievement 6(8.1)
	Survey research 2(2.7)	Assessment status 2 (2.7)	
	Comparative research 1(1.4)	Validation of assessment tools 2(2.7)	Aptitude 2(2.7)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	Research contents (%)	Achievement/Aptitude evaluation(%)
	Correlation /Cause research1(1.4)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1(1.4)	
Gifted child 8(10.8)	Content analysis research 4(5.4) 6(8.1)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5(6.8)	Achievement 4(5.4)
	Observational research 1(1.4)	Validation of assessment tools 1(1.4)	
	Complex research 1(1.4)	Usage of assessment tools 1(1.4)	Aptitude 4(5.4)
		Blend 1(1.4)	
College students 5(6.8)	Comparative research 2(2.7)	Usage of assessment tools 2(2.7)	Achievement 4(5.4)
	Survey research 2(2.7)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1(1.4)	
	Experimental research 1(1.4)	Validation of assessment tools 1(1.4)	Aptitude 1(1.4)
		Usage of assessment tools 1(1.4)	
Infant child 4(5.4)	Content analysis research 2(2.7)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4(5.4)	aptitude 3(4.1)
	Experimental research 1(1.4)		Achievement 1(1.4)
	Complex research 1(1.4)		
Adults 1(1.4)	Comparative research 1(1.4)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1.4)	Aptitude(1.4)
Special education subject 1(1.4)	Survey research1(1.4)	Assessment status (1.4)	Achievement(1.4)
Total 74(100)			

(2)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 대상, 연구내용, 성취/적성평가 동향

내용분석연구가 연구대상과 연구내용 면에서 가장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 방법에 따른 성취/적성평가 비율은 연구가 1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취 평가의 수가 더 많았다. 복합연구 방법의 연구내용은 평가도구개발이 총 8편중 7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에 다른 큰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7).

<Table 7> Analysis of research methods, research contents, achievement/Aptitude assessment on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	Research subject (%)	Research content(%)	(%)
Content analysis research 45(60.8)	Composite/No specific subject 19(25.7)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20(27.0)	Achievement39 (52.7)
	Primary school students 8(10.8)	Usage of assessment tools 13(17.6)	
	Secondary school students 6(8.1)	Assesment concept/theory 6(8.1)	
	Gifted child 6(8.1)	Assessment status 3(4.1)	Aptitude 6(8.1)
	Teachers 4(5.4)	Validation of assessment tools 2(2.7)	
	Preschool students 2(2.7)	Blend 1 (1.4)	
Survey research 10(13.5)	Secondary school students4(5.4)	Assessment status 6(8.1)	Achievement 9(12.2)
	Teachers 2(2.7)	Validation of assessment tools 2(2.7)	
	College students 2(2.7)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1(1.4)	Aptitude 1(1.4)
	Primary school students 1(1.4)	Usage of assessment tools 1(1.4)	
	Special education subjects 1(1.4)		
Complex research 8(10.8)	Primary school students 3(4.1)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7(9.5)	Achievement 6(8.1)
	Composite/No specific target 3(4.1)		
	Gifted child 1(1.3)	Assesment concept/theory1(1.3)	Aptitude 2(2.7)
	Preschool students 1(1.3)		
Comparative research 5(6.8)	College students 2(2.7)	Assessment status 2(2.7)	Achievement 4(5.4)
	Teachers 1(1.4)	Validation of assessment tools 2(2.7)	
	Secondary school students 1(1.4)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1(1.4)	Aptitude 1(1.4)
	Adults 1(1.4)		
Experimental research 3(4.1)	College students 1(1.4)	Usage of assessment tools 2(2.7)	Achievement 2(2.7)
	Preschool students 1(1.4)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1(1.4)	Aptitude 1(1.4)
	Primary school students 1(1.4)		

Research method(%)	Research subject (%)	Research content(%)	(%)
Observational research 1(1.4)	Gifted child 1(1.4)	Blend 1(1.4)	Achievement 1(1.4)
Case study research 1(1.4)	Primary school students 1(1.4)	Usage of assessment tools 1(1.4)	Achievement 1(1.4)
Correlation /Cause research1(1.4)	Teachers 1(1.4)	Usage of assessment tools 1(1.4)	Aptitude 1(1.4)
Total 74(100)			

(3) 연구 내용에 대한 연구대상, 연구 방법, 성취/적성 연구 동향

연구내용 중에서 평가도구 개발은 그 양이 많은 만큼 연구대상을 골고루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은 모두 연구가 수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대상이 하나의 대상으로 편중되지 않았다는 점은 평가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이다. 연구내용에 따라 활용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내용분석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가 현황/실태연구는 연구내용의 특성상 조사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현황/실태연구는 적성평가가 없고 모두 성취평가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현상의 성질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므로(Choi et al., 2014), 적성평가의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성평가에 대한 현황/실태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Table 8>.

<Table 8> Analysis of research methods, research contents, achievement/Aptitude assessment on research contents

Number of research(%)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Achievement/Aptitude(%)
Development of assesment tools 30(40.5)	Composite/No specific subject 7(9.4)	Content analysis research 20(27.0)	Achievement 24(32.4)
	Gifted child6(8.1)	Complex research 7(9.3)	
	Primary school students 5(6.7)		
	Secondary school students 5(6.7)	Survey research 1(1.4)	

Number of research(%)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Achievement/ Aptitude(%)
	Infant child 4(5.4)	Experimental research 1(1.4)	Aptitude 6(8.1)
	Teachers1(1.4)		
	College students 1(1.4)	Survey research 1(1.4)	
	Adults 1(1.4)		
Usage of assessment tools18(24.3)	Composite/No specific subject 6(8.1)	Content analysis research 13(17.5)	Achievement 13(17.5)
	Primary school students 6(8.1)	Experimental research 2(2.7)	
	Teachers3(4.0)	Correlation /Cause research 1(1.4)	Aptitude 5(6.8)
	Secondary school students 1(1.4)	Survey research 1(1.4)	
	College students 1(1.4)		
	Gifted child 1(1.4)		
Assessment status 11(14.9)	Secondary school students 4(5.4)	Survey research 6(8.1)	Achievement 11(14.9)
	Teachers 2(2.7)	Content analysis research 3(4.1)	
	College students 2(2.7)		Comparative research 2(2.7)
	Composite/No specific subject 2(2.7)		
	College students 1(1.4)		
Assesment concept/theory 7(9.5)	Composite/No specific subject 6(8.1)	Content analysis research 6(8.1)	Achievement 7(9.5)
	Primary school students 1(1.4)	Mixed method 1(1.4)	Aptitude-
Validation of assessment tools 6(8.1)	Teachers 2(2.7)	Comparative research 2(2.7)	Achievement 3(4.0)
	Secondary school students 1(1.4)		
	Gifted child 1(1.4)	Survey research 2(2.7)	
	Primary school students 1(1.4)	Content analysis research 2(2.7)	
	College students 1(1.4)		

Number of research(%)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Achievement / Aptitude(%)
Blend 2(2.7)	Composite/No specific subject 1(1.35)	Content analysis research 1(1.35)	Achievement 2(2.7)
	Gifted child 1(1.35)	Observational research 1(1.35)	Aptitude -
Total 74(100)			

IV. 결론

본 연구는 과거 30년간의 음악 평가 논문의 추세를 알아보고 음악평가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1990년부터 2020년 5월 현재 까지 RISS와 KCI에 실린 음악평가 관련 논문 74편을 연도별,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연구내용별로 분류하고 논문 편수 및 백분율을 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성취평가와 적성평가의 비율과 10년 단위로 연구를 분석하여 큰 흐름을 살펴보고, 각 분석 영역에 대한 타 영역의 연구 동향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악평가 연구는 꾸준히 실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은 ‘복합/특정대상 없음’이 22편(29.7%)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과 특수교육대상자가 각 1편(1.4%)으로 가장 적었다. 연구내용별로는 평가도구 개발연구가 30편(40.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적인 면으로는 분석연구가 45편(60.8%)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 상관/원인, 사례 연구가 각 1편씩(1.4%) 가장 적었다. 전체적인 흐름은 1990년부터 1999년에 비해 2000년 이후부터는 연구의 수가 이전보다 증가하였고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면에서 다양해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영재 평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각 분석영역에 대한 다른 분석영역 동향은 연구대상별로는 초등학생이 연구 방법 면에서 가장 다양했으며, 유아대상의 연구내용은 모두 평가도구 개발이었고, 중등학생은 모두 성취평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평가도구개발내용이 가장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했고, 실태조사는 모두 성취평가와 관련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악평가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의 활용을 통해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평가대상자의 개별적 특성, 상황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사례, 관찰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이는 평가가 단순히 등급을 매기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에서 적은 수를 차지한 대학생과 유아, 성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질과 목표달성 여부, 학생의 성취정도와 음악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음악평가 결과가 신뢰를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평가도구가 신뢰를 얻고 타당해야 하므로 음악평가의 발전을 위해서 평가도구 검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취평가와 적성평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음악 적성평가의 양적 증대가 필요하고, 음악 적성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적성평가에 대한 현황/실태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등학생의 적성을 알아보고 적절한 음악교육이 행해질 수 있도록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적성평가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평가 연구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연구를 제안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과 행정의 변화에 따라 평가연구도 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연구의 주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밀히 살피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평가 연구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화가 평가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의 구체적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를 한다면 음악평가, 특히 학교음악평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음악평가 방법은 포트폴리오, 관찰, 상호평가, 자기평가, 지필평가, 면접평가 등 매우 다양한데, 음악 평가 논문을 음악평가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동향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시대에 따라 성행하는 평가 방법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등의 심층적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육 심리학, 음악교육철학, 음악 교수·학습방법 등 음악교육의 다양한 분야별 평가 논문의 동향을 연구하길 제안한다.

References

- Ahn, G. S., & Kim, S. H. (2006). The analysis on teacher's practice of assessment about children's musical attitude, musical behavior, musical concep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1. 63-87.
- Byun, M. H.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the status of qualifying tests for secondary music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 Education*, 36(3). 83-103.
- Byun, Y. H., & Hyun, E. J. (2005). Designing Rubrics for assessing young children's crea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5(5). 271-301.
- Choi, E. A. (2018). A study on the contents of MCA in US national core music standard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6(3). 103-122.
- Choi, E. S., Kwon, D. W., Moon, K. S., Seog, M. J., Seung, Y. H., Jeong, J. E., Chung, J. W., Oh, J. H., Choi, M. Y., & Ham, H. J. (2014). *Research in music education*. Seoul: Kyoyookbook.
- Choi, E. S., Kwon, D. W., Seog, M. J., & Jeong, J. E. (2008). The development of the tests of music performance and national norms for the third and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4. 171-196.
- Choi, E. S., & Shin, H. K. (2017). An investigation in trends of music creativity research focusing on research methods and area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1(4). 459-469.
- Choi, J. E., & Bae, S. Y. (2015). Faculty inter-judge reliability and assessment criteria of piano performance evaluation. *Research in Music Pedagogy*, 16. 233-253.
- Choi, J. H. (2011). Research methodology of music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2. 205-220.
- Choi, Y. K. (2010). An analysis of problems with paper-pencil tests of music class in elementary school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9. 101-128.
- Chung, S. I., & Shin, D. H. (2016). Trends of assessment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36(4). 563-579.
- Hyun, K. S. (2006). A validity study of Korean music aptitude test. *Journal of Ewha Music Research Institute*, 10(1). 243-263.
- _____ (2009). A concurrent validity study of kids' music aptitude test.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7(2). 53-66.
- Jang, G. J. (2019). An analysis of instruction and evaluation for the enhancement of music subject competencies.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4(1). 89-110.

- Jang, J., & Lim, S. (2020). The cluster of factors affecting academic-achievement and their differences in undergraduate's external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4). 1303-1322.
- Jang, K. B, Lim, W. S., & Cho, S. K. (2005).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web-based evaluation system for music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 Evaluation*, 8(2), 99-108.
- Jeong, J. E. (2007). Considerations on evaluative techniques at music classroom: Focusing on elementary 3rd & 4th grad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2. 101-125.
- _____ (2009). An analysis on 2008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Focused on music.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7(2). 105-121.
- Jeong, J. E., & Seog, M. J. (2014). The research trends of music education in Korea by the analysis of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1), 165-188.
- Kim, E. A., & Kang. W. (2010). An analysis of content validity or third-grade mathematics achievement tests. *Journal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14(2). 177-196.
- Kim, H. J.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ssessment instrument for music aesthetic responses. *Journal of Ewha Music Research Institute*, 7. 1-34.
- Kim, H. S. (2008). Art education, assessment, and evaluation: Are assessment and evaluation still the antagonists of art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6(2). 1-17.
- Kim, I. Y. (2016). The development of a music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smart education of creative project stud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2). 69-94.
- Kim, S. H. (2020).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5(1). 21-41.
- Kim, Y. H. (1999). Assessment techniques in arts prope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8. 159-183.

- Kwak, H. W., Kang, O. R., & Kim, K. S (2016). Research trends on dynamic assessment studies in republic of Korea.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7(2). 1-18.
- Kwon, D. W. (2013). A study on program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music class for elementary school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3). 1~39.
- Lee, D. N., Ju, T. W., & Choi, Y. Y. (200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tools for appreciation of Korean classical music.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11(2). 345-385.
- Lee, S. J. (2004). A case study on child evaluation practices in kindergart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5). 225-268.
- Lee, K. J. (2012). An basic study on the curriculum evaluation of gifted education in arts: The development of a curriculum evaluation model. *The Journal of Curriculum & Evaluation*, 15(2). 217-240.
- Ministry of Education (2015). *Music curriculum*. No.2015-74. [Supplimentary 2]
- Park, E. S. (2018).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and other variables in judging musical creation resul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4). 49-68.
- Seung, Y. H., Min, K. H., Yang, J. M., & Chung, J. W. (2019).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eoul: Hakjisa.
- Won, C. R. (2018). A study on the change of basic music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in speci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2). 57-79.
- Yoon, M. J. (2019). Publication trends of music education research in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journa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6). 589-608.